민족의 향취 그윽한 여러가지 쑥떡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여러가지 낟알과 나물, 풀 등의 독특한 향기와 맛, 자연색소들을 리용하여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으며 보기도 좋은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 식생활에 널리 리용해왔다.

쑥떡도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해먹어온 고유한 민족음식의 하나이다.

얼마전 우리는 쑥떡을 비롯한 여러가지 민족음식을 특색있게 만들어 봉사하는것으로 소문난 창광음식점거리 떡국집을 찾았다.

김이 문문 나는 떡국이며 시원한 김치, 특유한 향취가 나는 쑥송편, 쑥절편, 단소 쑥찰떡을 비롯한 갖가지 쑥떡들이 차려진 식탁앞에 앉아 식사를 하는 손님들의 얼굴마다에는 웃음이 가득차있었다.

서현경책임자의 말에 의하면 이 식당에서 봉사하고있는 민족음식들가운데서도 특별히 손님들의 인기를 끄는것은 쑥떡이라고 한다.

《떡은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설명절날에는 떡국을 먹고 오뉴월이면 산과 들에 나는 쑥을 채취하여 쑥떡을 만들어 먹군 하였습니다.》

쑥이 건강에 어떻게 좋은가, 쑥떡을 맛있게 만들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서현경책임자는 쑥떡과 관련하여 모르는것이 없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인 쑥은 그 종류가 수십종이나 되는데 그 용도에 따라 크게 떡쑥과 나물쑥, 약쑥으로 나눈다고 한다.

떡쑥에는 단백질, 기름, 탄수화물, 광물질, 섬유소가 들어있는데 쑥 100g에는 카로틴이 3.69mg 함유되여있어 홍당무우와 같이 식물성료리재료가운데서 가장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떡쑥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건강에 아주 좋다는것이였다.

쑥떡은 랭병과 부인병, 소화장애 등에 아주 효과적이며 고혈압, 기관지염, 감기와 같은 질병치료에도 좋다.

그리고 일반떡에는 없는 비타민A와 C, 광물질을 보태주므로 영양학적인 의의가 클뿐아니라 알카리성식품인 쑥과 산성식품인 흰쌀가루를 섞어만들기때문에 산-알카리평형을 맞추어준다.

평양시내에 쑥떡을 만들어 봉사하는 식당들이 많지만 이곳 떡국집의 쑥떡은 쑥의 향기가 알맞춤하고 색갈이 고르로우며 그 맛이 독특한것으로 하여 손님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최근에 이곳 떡국집에서는 단소쑥찰떡을 새로 만들어 내놓았는데 사람들속에서 수요가 높다고 한다.

손님들이 좋아하는 쑥떡을 봉사하게 된데는 이곳 료리사들과 봉사원들의 수고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봄이 오면 이들은 산과 들에 나는 햇쑥을 채취하여 원료를 확보하고있으며 봄철만이 아니라 사시장철 독특한 쑥향기 풍기는 쑥떡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올해 설명절날 이곳 떡국집에 와서 떡국과 함께 쑥떡을 비롯한 여러가지 민족음식들을 맛본 한 해외동포는 이렇게 맛있는 떡을 처음 먹어본다, 그 비결을 대줄수 없는가고 부탁하였다고 한다.

우리 식당의 쑥떡을 한번 맛보라고 건네는 서현경책임자의 손길에 끌려 식탁에 앉으니 독특한 쑥향기가 와닿았다. 향기뿐아니라 그 맛도 참으로 좋았다.

여기 떡국집이야말로 민족의 향취 그윽히 넘쳐나는 곳이였다.

본사기자 김춘경

활짝 핀 장미꽃들

장미는 세계적으로 원예품종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꽃나무의 하나로서 바빌로니아시대에 그리스에서 이미 관상용, 약용, 향료용으로 재배되여왔다고 한다.

장미는 1270년에 본격적으로 재배되였고 15세기에 들어와서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장미는 그 종류가 놀라울 정도로 많은데 알려진것만 하여도 2만 5 000여 품종이며 그중에서 화초로 리용되는것은 약 1만품종이다.

현재 재배되고있는 장미는 여러차례의 섞붙임과정에 얻어진 재배품종을 포괄하므로 학명도 Rosa hybrida로 쓰이고있다.

재배력사가 오래된것으로 하여 장미에 대한 신화와 전설은 다른 꽃들보다 많으며 사람들은 장미꽃을 《꽃의 녀왕》으로 여기고있다.

장미꽃은 사랑과 열정, 순결성의 상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스승, 친우들의 생일이나 결혼, 학교입학 등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랑과 축하의 뜻으로 널리 리용된다.

이러한 아름다운 장미꽃이 최근 공화국 각지의 거리와 공원, 기관, 기업소구내들에 활짝 피여나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평양시에서도 수십종의 장미를 원림록지구역들에 심어 수도의 면모를 보다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지방의 곳곳마다에서도 활짝 피고있는 장미꽃들은 정면돌파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인민들에게 생활의 랑만과 정서를 안겨주고 거리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고 있다.

본사기자

백두산지역을 조선의 첫 세계지질공원으로

백두산지역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공화국의 해당 부문 과학자들은 수십년간에 걸치는 조사와 연구과정에 백두산지역의 지질학적특성과 세계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론증하였으며 이 지역을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할수 있는 학술적기초를 마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네스코민족위원회는 2018년에 백두산지역을 조선의 첫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할것을 결정하고 유네스코의 절차규정에 따라 추천의향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신청문건을 제출하였다.

현재 유네스코에서는 신청문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건강에 좋은 귀안마

귀는 오장륙부의 축소판이라고 할만큼 인체의 장기와 밀접히 련관되여있어 귀안마로 얼마든지 치료효과를 볼수 있다.

우선 무리했거나 여러가지 흥분으로 혈압이 높아진 경우에는 귀잡아당기기로 효과를 볼수 있다.

강압구(귀바퀴의 웃쪽 뒤면에 움푹 패인 곳)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귀표면을 집게손가락으로 누르면서 귀불(귀바퀴의 아래쪽으로 늘어진 부분)의 밑부분까지 잡아당겨주는 방법으로 한번에 7~8번씩 반복해주면 혈압내림효과를 볼수 있다.

습관성머리아픔이나 스트레스로 오는 머리아픔도 역시 귀잡아당기기로 해결할수 있다. 혈압상승으로 뒤목이 뻣뻣해질 때 귀불을 조금 세게 잡아당겨주면 효과를 볼수 있다.

눈이 침침할 때에 귀불을 늘구어 아래로 잡아당기게 되면 효과를 볼수 있다.

눈이 침침해지는 원인을 두가지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로화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눈의 피로로 오는 현상이다. 로화현상으로 눈이 침침해지는 경우에는 백내장으로 번져질수 있는데 습관처럼 귀불을 아래로 잡아당겨주면 예방할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귀불가운데를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누른 후 밑으로 잡아당기는것을 50회 정도 반복하는것이다.

소화가 안될 때 대장, 소장, 십이지장에 영향을 주는 이륜각(귀구멍우에 꼬리처럼 생긴 곳)우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을 자극해주면 소화가 잘되고 내장을 튼튼하게 할수 있다.

어깨결림이나 허리아픔이 있을 때 어깨와 허리에 영향을 주는 대이륜(귀중심에 크게 불룩 나온 곳)부위를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목을 우로 쭉 제치거나 좌우로 돌리면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본사기자

호평받는 《향약집성방》 열람프로그램

15세기에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고려약을 가지고 병을 치료한 경험을 집대성하여 《의방류취》, 《동의보감》과 함께 우리 민족의 3대고려의학고전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향약집성방》이라는 유명한 의학책을 편찬하였다.

총 85권이라는 전서적인 규모로 편찬출판된 고려의학고전 《향약집성방》은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살아오는 산과 들, 바다에서 나는 약초와 약재들로 구성된 처방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개별적인 고려약들에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까지 밝혀주어 누구나 약초를 알아보고 리용할수 있게 하였을뿐아니라 중요한 약재들은 그 산지까지 밝혀주었다.

고려의학종합병원에서는 우리 민족의 고려의학유산인 《향약집성방》 원본(총 85권, 1433년 출판)을 화상복원하여 전자도서로 편찬하고 화상 및 검색어에 의한 열람체계를 개발하였다.

하여 고려의학고전 《향약집성방》을 우리 민족의 재보로 영구보존하며 학술 및 의학사연구에 귀중한 사료를 제공해주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화상열람부문과 검색열람부문으로 구성된 고려의학고전 《향약집성방》 열람프로그람은 《향약집성방》의 85권에 해당한 원본과 번역문을 1:1 화상대응하여 동시에 열람할수 있다.

또한 고려의학적병문에 따르는 병증과 치료처방을 종합체계화한데 기초하여 고려약처방, 단방 및 민간료법, 침뜸처방, 개별고려약, 침혈 등을 검색어로 하는 1만 4 000여건의 검색자료를 구축해놓음으로써 누구나 올림말검색 및 검색어에 의한 검색을 진행하여 필요한 내용을 열람할수 있게 하였다.

이밖에 2 000여건의 용어해설자료를 주었다.

열람속도가 종전의 250배에 달하는것으로 하여 그 실효성이 매우 큰 고려의학고전 《향약집성방》 열람프로그람은 지금 보건부문의 의료일군들과 연구사들속에서 커다란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민족회화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인물풍속화가 신윤복

신윤복은 김홍도와 더불어 18세기 사실주의회화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인 인물풍속화가이다.

김홍도가 주로 산과 들에서 땀흘려 일하는 농민들의 생활세태를 그렸다면 신윤복은 도시에서 사는 평민계층의 각이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

그의 작품들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주막》, 《배놀이》, 《봄나들이》, 《가야금타기》, 《칼춤》, 《미인도》, 《소나무와 매》 등이다.

《주막》은 예리한 관찰과 정확한 소묘에 기초하여 오고가는 길손들이 드나들던 주막집의 정경을 부감형식의 구도, 간결한 선과 담박한 색채로 매우 실감있게 보여준 그림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가마가 가지런히 걸려있는 부뚜막가에 얌전하게 앉아서 길손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녀주인, 어수룩한 차림새와 몸가짐을 하고 시중을 들면서 길손들을 바라보는 사내, 성격과 신분, 차림새가 각이한 길손들 등 인물들의 모습을 통하여 당시의 세태풍속을 정확히 보여주고있다.

이 작품에서 화가는 진실한 동정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화폭의 중심에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있다.

이와 함께 신윤복은 《배놀이》를 비롯한 작품들에서 량반들의 안일하고 부화타락한 생활리면도 적라라하게 폭로하였다.

봉건지배층이 천시하던 백성들의 생활을 즐겨 다룬것이나 량반들의 위선에 찬 생활리면을 날날이 발가놓고 야유조소한것은 당시 화단에서는 파격적인 일이였다.

신윤복이 뛰여난 화가였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전해지는것이 없는것은 바로 그의 그림이 봉건사대부들의 비위를 거슬린것과 관련되여있다.

신윤복은 인물풍속화에서 뿐아니라 산수, 날짐승그림에서도 뛰여난 재능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신윤복은 현실에서 창작의 원천을 찾고 모순에 찬 봉건사회를 예리하게 해부함으로써 조선회화사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인물풍속화 《주막》(신윤복 작)

민요—《노들강변》

민요 《노들강변》은 다른 민요들에 비해 나온지가 그리 오래지 않다. 그러나 이 민요가 오랜 민요들과 함께 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있는것은 가사에 담겨진 내용이 당대 사회의 지향을 잘 반영하고 민족적인 선률이 가사를 잘 안받침하고있기때문이다.

민요 《노들강변》에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래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꿋꿋이 살아가려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념원이 잘 반영되여있다.

가사에서는 강변의 봄버들을 두고 덧없이 흐르는 세월과 인생을 개탄하기도 하고 백사장모래불에 남긴 자욱들과 더불어 지난날을 더듬기도 하면서 우리 민족이 당하던 수난과 고통의 감정을 절절히 노래하고있다.

또한 나라잃은 설음과 일제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을 싣고 두둥실 흘러가라고 하소연하면서 밝은 세상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고있다.

가사의 내용은 독특한 시형상으로 되여있다.

민요의 가사에서는 행복한 새세상을 념원하는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의 감정을 은유적수법으로 형상하고 있다.

가사의 정서적내용은 아름답고 우아하면서도 보다 락천적인 정서로 일관된 선률형상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

9/8박자로 된 민요 《노들강변》은 양산도장단의 가벼운 률동성과 연하고 부드러운 선률로 특징지어진다.

조선민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여주는 민요 《노들강변》은 군중무용곡으로 되고있으며 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본사기자

사화

리순신과 로인 (2)

글 박춘명, 그림 채대성

리순신의 행차는 한낮이 지나서야 이곳에 당도하였다.

《어른께 문안드리옵니다.》

길가에 늘어섰던 사람들은 일제히 두손을 땅에 짚고 허리를 굽혔다.

이곳까지 오는 사이에 벌써 여러번 이런 마중을 받았으나 매번 리순신은 가마에서 내려 정겹게 마중나온 사람들을 둘러보군 하였다.

《무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마중하여주어 실로 고맙네.》

《황공하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히였다.

이때 갑자기 칠룡이라는 젊은이가 리순신앞에 한걸음 나와 부복하였다.

《통제사어른께 아뢰옵니다. 전라수군 칠룡이 벌을 받고저 대령하였나이다.》

《벌이라니 무슨 말인고?》

《소인이 원균통제사밑에서 싸우다가 배를 깨먹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으나… 그러니 마땅히 군법으로 벌을 받아야 할줄로 아뢰나이다.》

칠룡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리순신은 그제야 알겠다는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것은 너의 죄가 아니다.》

《황공하옵니다.》

이때 늙은 어부가 무릎걸음으로 나오며 말했다.

《이애가 소인의 아들이로소이다. 소인부자를 다 수군에 받아주시기 바라옵니다.》

《젊은이는 받을수 있으나 늙은이야 무슨 힘으로 고달픈 군역을 감당해내겠는고.》

《이 늙은 몸이 한생을 바다에서 살았으니 바다길에는 아직 젊은이보다 나은줄로 아뢰옵니다.》

늙은이의 말은 절절하게 울렸다.

《그대 부자의 애국충정이 기특하다. 내뒤로 그대들같은 사람들이 따라오니 함께 참군하라.》

장군의 행차뒤에는 수백명의 청장년들이 서있었다.

그들부자는 리순신에게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너무도 기뻐서 그들속으로 달려갔다.

(만일 우리 수군이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 저런 젊은이들에 의하여 얼마나 잘 싸우고있겠는가?)

리순신은 한숨을 내쉬였다. 지금은 싸움배 한척 변변한것이 없다.

이 모든것은 원균의 공명심과 당파싸움때문에 생겨난것이였다.

리순신이 백의종군을 하게 된것은 1597년 1월이였다.

바다와 륙지에서 무리로 녹아난 왜놈들은 1593년 6월부터 일시적인 휴전상태가 조성되자 강화담판을 한다고 하면서 1차침공에서 실패한것을 만회해보기 위한 술책을 다하였다.

왜놈들은 강화담판에서 오만하게도 충청, 전라, 경상도를 떼여달라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1597년 1월 다시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하였다.

이때 조정에서는 소서행장(고니시 유끼나가)과 가등청정(가또 기요마사) 둘사이가 나쁜것을 리용하여 그들을 더욱 분리시키여 가등청정에게 붙잡혀간 왕자들을 데려올가 하고 경상우도병마절도사 김응서를 시켜 소서행장과 교섭을 진행하고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있던 풍신수길은 반간정책을 쓸것을 획책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요시라를 보내여 비밀리에 이런 말을 전하게 하였다.

《강화가 성립되지 않는것은 가등청정이 계속 싸울것을 주장하기때문입니다. 그가 왜땅에서 대군을 거느리고 인차 돌아올것이니 귀국의 수군으로 그를 해상에서 목을 지키고있다가 쳐죽여버리면 전쟁은 중지될것이며 두 왕자도 다시 돌아오게 될것입니다.》

간사한 요시라는 감언리설을 쏟아놓으면서 가등청정이 타고오는 배는 어떻게 생겼다느니, 기발은 어떻고 표식은 어떠며 빛갈은 어떻다느니 주어치기까지 하였다.

김응서는 그 말을 곧이듣고 조정에 이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면서 급히 수군을 내보내여 가등청정을 칠것을 덧붙였다.

조정에서는 김응서의 보고를 받고 즉시로 리순신에게 가등청정을 공격하여 죽일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리순신은 수군을 움직이지 않고 2~3일간을 지냈다.

요시라는 다시 김응서를 찾아왔다.

《가등청정이 벌써 해안에 접근했는데 어째서 기회를 놓치려 합니까?》

요시라의 말을 듣고 김응서는 다시 조정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수군을 내보낼것을 제기하였다.

이렇게 되자 대간(사헌부, 사간원의 벼슬의 총칭)은 서로 다투어가면서 왕에게 글을 올려 리순신이 진격을 지연시키고있는것은 나라에 죄를 범한것이라고 떠들어대며 엄형을 내리자고 하였다.

국왕은 자기의 측근자를 수군에 파견하여 조사하게 하였으나 그자도 역시 원균의 당파이라 사실을 외곡하여 보고하였다.

한편 원균도 리순신이 왕명을 거역하여 출전하지 않는다고 참소를 올렸다.

이 사실인즉 적의 피수 풍신수길이 조선의 수군을 없애지 않고는 조선침략의 뜻을 이룰수 없다는것을 알고 리순신휘하의 수군을 제놈들의 수군매복권내에 유인하여 일격에 요정을 내기 위한 간계였던것이다.

리순신은 가등청정을 치러 나가라는 왕명을 받고 운주당에서 열백번 사색하던 끝에 비록 자기 한몸이 역적의 루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질망정 조선수군을 보존하겠다는 결심밑에 막료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출전하지 않았던것이다.

해삼회

해삼회는 해삼을 날것으로 양념한 음식이다.

데쳐서 한것은 해삼숙회라고 한다.

해삼은 예로부터 전복, 섭조개와 함께 삼화(세가지 재물이나 돈)로 불리우는 값비싼 식품이였으며 해삼으로 만든 음식은 모두 고급으로 일러주었다.

해삼을 잡아 물에 며칠간 담그면 간이 빠지는데 이것을 썰어서 회를 만들고 초를 친다.

해삼은 인체에 정력증진, 항궤양, 면역력강화, 빈혈치료, 혈압낮춤 등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몸이 쇠약해졌을 때, 자주 앓을 때, 간염때, 빈혈이 올 때,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때 회를 만들어 먹으면 좋다.

해삼회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본음식감으로 해삼을 준비한다.

생해삼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낸 다음 물에 씻어 식초를 두고 재운다.

식초에 재운 해삼을 길이는 그대로, 너비는 가늘게 썰어서 접시에 담는다.

초간장에 다진 마늘과 채친 파, 소금을 조금 넣고 해삼접시와 함께 낸다.

본사기자

유모아

아들을 가르치는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이 산책하다가 길바닥에 떨어져있는 장갑 한짝을 보았다.

《얘야, 사람이란 정직해야 한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며 장갑을 주어 길가의 돌의자에 올려놓았다.

그들이 한 50m를 갔을 때 꼭같은 장갑 한짝이 또 눈에 띄였다.

《이게 뭐냐?》

아버지는 제꺽 장갑을 주어 끼여보고나서 아들에게 말하였다.

《얘야, 빨리 뛰여가서 방금 돌의자에 놓고온것을 가져오너라!》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 집 위 원 회